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한·중 관계의 오늘과 내일

[발제자]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문자 후원

#7079-4545

제330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가 서로 융합되고 있다. 올해 들어 양국 관계는 더욱 발전했고 그 발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정치적 상호신뢰가 지속해서 강화되었다. 둘째, 경제 무역 관계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셋째, 인문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한중 양국은 미래를 향해 더 나은 발전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전략적 소통을 핵심으로 하여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제교류를 더욱 긴밀히 추진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심도 있게 발굴하여 한중 공동이익의 파이를 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인문교류를 확대하여 서로 배우고 본보기로 삼으며 양국 국민 간 우호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 넷째, 협력의 중점분야를 마련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의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

■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를 위해 관련국들은 다음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첫째는 비핵화 목표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해결 방식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는 동시적이고 대등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장기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 ◆ 한·중 관계

- ◆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가 융합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70년 동안 양국은 빠르게 발전했다.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의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양국에도 실질적 이득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한중 관계는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3단계 도약을 이루었다.
- ◆ 올해 들어 양국 관계는 첫째, 정치적 상호신뢰가 지속해서 강화되었다. 최고위층을 포함한 각 계층 간의 교류와 왕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정부, 의회, 정당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 ◆ 둘째, 경제 무역 관계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양국 간 무역액은 증가하고 있다. 초기 약 50억 달러에서 현재는 60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8년에는 3,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중국은 수년간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의 제3의 무역파트너, 제3의 수출대상국이자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 셋째, 인문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가 간의 교류는 국민 간의 친화에 달려있어 민심의 상호 소통은 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윤활제 역할을 한다. 국민 간의 빈번한 왕래, 문화의 폭넓은 교류와 융합은 갈수록 한중 교류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한중간에는 이미 명실상부한 일일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양국 간 인적 교류는 1,0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한국을 방

문화, 교육,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도 심도 있게 발전하고 있다.

- ◆ 미래의 양국 협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힘써야 한다. 첫째, 전략적 소통을 핵심으로 하여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서로 신뢰해야 비로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향후에도 한중 협력의 내실을 다지고 양국 관계의 긍정적 에너지를 계속 불어넣어 한중 관계가 더 올바른 궤도를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 둘째, 경제교류를 더욱 긴밀히 추진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심도 있게 발굴하여 한중 공동이익의 파이를 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신 남방정책, 신 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유사점과 공통점이 많기에 양측은 기존 경제 무역 협력의 규모와 형식을 유지하고 또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비교우위를 달리하여 동남아 지역 등 해외 제3국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협정 2단계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무역투자, 디지털 경제, 국가 간 상호연결된 분야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다자간 무역체제를 추구해야 한다.
- ◆ 셋째, 인문교류를 확대하여 서로 배우고 본보기로 삼으며 양국 국민 간 우호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 한중 인문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한중 우호가 양국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한중 관계를 더 잘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보편적 인식이자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은 두 나라의 풍부한 인문 자원을 잘 활용하여 문화, 과학기술, 교육, 스포츠, 청소년 지방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질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문명 간 교류와 상호 학습을 통해 더 많은 문화적 협력을 달성하고 협력이 혁신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 ◆ 넷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의 중점분야를 마련해 다자주의의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많은 국제문제와 지역 문제에 있어서 비슷한 이점과 이익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지키고 한반도 문제, 기후변화, 테러리즘 척결 문제에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UN, APEC, G20, 동아시아 협력, 한·중·일 협력 등 다자의 틀 안에서도 평화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고 국제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 관련국들의 공동 노력으로 작년 이후부터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되돌아왔다. 앞으로도 관련국들이 계속 노력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 한반도 문제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고 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제재 해제를 추진하고 경제발전을 이뤄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관련국들은 모두 이 역사적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비핵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극절을 피할 수 없다. 한반도 문제는 그 뿌리가 깊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일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하며 일시적인 순조로움과 그렇지 못할 경우 또는 부분적 성공과 실패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희망의 문이 열린 만큼 우리는 미래를 향해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나가야 한다.
- ◆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정과 관련국들의 안보에 관한 관심을 함께 거론하여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일 대규모 군사훈련을 동시에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우리는 핵과 평화 두 가지가 함께 굴러가야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다음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첫째는 비핵화 목표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 중국은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일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의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게 하는 동시에 관련국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 ◆ 둘째, 정치적 해결 방식을 견지해야 한다. 무력으로는 이견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초래한다.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관련 각국은 하루속히 냉전적 사고와 역사적 한계를 뛰어넘어 서로 신뢰하지 않았던 그간의 상

황을 타파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신뢰를 토대로 진정성 있게 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 ◆ 셋째는 동시적이고 대등한 문제해결 방식을 견지해야 한다.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현 가능한 방법을 단계적이며 동시적 원칙에 따라 관련국들의 관심사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상호신뢰를 쌓고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다.
- ◆ 넷째, 장기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에는 ‘얼음이 석 자나 언 것은 하루 추위에 언 것이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다. 한반도 문제는 그 복잡성과 특수성 때문에 단번에 해결하기 어렵고 인내심과 변함없는 꾸준한 의지가 필요하다. 각국이 계속 한 방향으로 변함없이 대화를 지속해 나간다면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 한중 양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비핵화 추진,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와 관련하여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계속 유지하며 함께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계속해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입장과 행동을 조율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 ◆ 중국의 발전상황

- ◆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70년간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을 이끌고 세계에서 보기 드문 빠른 경제발전의 기적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기적을 이뤄냈다. 중화민족은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맞이하게 되었다.
- ◆ 얼마 전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제19차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중국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고 보완하며 인류문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또한, 중국의 평화, 발전, 협력과 번영의 길을 높이고 확고부동하게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며 세계평화를 지키고 공동발전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계획 정책 3가지는 다음과 같다.
- ◆ 첫째, 중국은 전방위적인 외교 구도를 완성할 것이다.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확고히 하며 평화 공존의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각국과의 우호 협력을 계속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가의 크고 작음과 강하고 약함, 빈부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할 것이다. 또한, 서로 존중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협력과 상생이 이뤄지는 국제관계의 건설을 추진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국제분쟁과 여러 이슈 및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며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동에 반대할 것이다. 중국은 강압적 국방 정책을 견지하거나 영원한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확장하지도 않을 것이며 영원히 세계평화를 지키는 굳건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 ◆ 둘째, 중국은 협력과 공동 번영이 이뤄지는 개방적인 체제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의 개방전략을 견지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보완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를 향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지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이 자주적으로 발전 능력을 높여나가는 것을 지원하여 전 세계의 발전 불균형과 정보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 셋째,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인류문명공동체 건설의 기치를 높이고 공동 창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견지하며 다자주의와 국제관계의 건전화를 제창하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의 변혁을 촉진할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